

다시 만나는 3인... 제3지대 구축 논의

〈김종인·김무성·정의화〉

분권형 개헌 고리...비박·비문세력 합쳐 정권창출

김종인 거취가 변수...정운찬 "탄핵 후 정당 선택"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 대표,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이르면 22일이나 23일 3자 회동을 하고 분권형 개헌을 고리로 한 제3지대 구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하지만, 반기문 전 유엔총장의 중도 포기 등으로 제3지대에서의 '빅 텐트' 구상이 사실상 동력을 잃은 상황이어서 대선 판을 흔들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김종인 전 대표와 정의화 전 의장,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은 조만간 회동을 갖고 대선 정국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세 사람은 지난 15일 회동에서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은 바 있다.

제3지대에서의 빅텐트는 분권형 개헌을 고리로 비박(비박근혜)과 비문(비문재인) 세력이 기성정당의 바깥에서 모여 힘을 합쳐 정권을 창출하자는 구상이었지만 주축 인물이었던 반 전 총장의 낙마로 동력을 상당 부분 상실했다.

그러나 정치권의 대표적인 '반패권주의자'로 통하는 김 의원과 김 전 대표, 정 전 의장이 최근 들어서만 벌써 두 번째 회합을 추진하면서 눈길을 모으고 있다.

김 의원은 바른정당의 대선 승리를 위해 연대를 넘어 연립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왔고, 정 전 의장은 '비패권 정상지대'를 내세워 빅텐트 구축을 구상해 왔다.

김 전 대표는 제3지대 형성을 위해 탈당을 결행할 것이라는 전망과 탈당을 접고 민주당 안희정 총남지사 지원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 속에 지난 16일 뒤편 안보회의 참석차 독일 방문길에 올랐다 이날 귀국했다.

특히, 제3지대론을 떠나 김 전 대표의 거취는 민주당의 경선 구도를 흔드는 것은 물론 야권발(發) 정계개편의 마지막 변수로 꼽히고 있다.

이날 귀국한 김 전 대표는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향후 거취와 관련해 "헌법 재판소 판결이 나고 정치 일정이 어떻게 잡히느냐에 따라 두고 봐야지, 미리 단도직입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총남지사의 지지율 동반상승 현상으로 제3지대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문제는 선거를 언제할지(에 달려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탈당 등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알아서 판단할 것이며 조금씩 서두르지 말라"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정치권 관계자는 "판을 흔들기 위한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김 전 대표가 탈당을 결행해야 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가능성이 낮다"며 "김 전 대표가 민주당 잔류를 선언한다면 제3지대론은 사실상 소멸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제3지대에서 머물고 있는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이날 "대

통령 탄핵 결정을 전후해 어느 정당이든 입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오후 충남 천안에서의 갑담회에서 "각 당에서 접근하고 있지만 지금 입당하면 불쏘시개 역할 밖에 못하는 만큼 우선 힘을 키우고 탄핵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즈음에 정당에 가입할 것"이라면서도 "국정농단 세력과는 같이 가기는 힘들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가 '개문발차'를 언급하면서 바른정당 입당 가능성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 정 전 총리 측에서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김종인에 쏠린 눈 민주당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 대표가 독일 방문을 마친 뒤 21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입국장을 빠져 나가고 있다. 김 전 대표는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 정의화 전 국회의장과 이르면 22일 3자 회동을 하고 분권형 개헌을 고리로 한 제3지대 구축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국민의당 '사드 배치 반대 당론' 유지

국민의당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와 관련,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기존 당론을 유지한 채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국민의당은 21일 오후 2시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열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연석회의에는 박지원 대표와 주승용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를 포함한 의원 27명이 참석, 박 대표와 주 원내대표를 제외한 25명이 발언했다. 안철수·손학규·천재배 전 대표 등 대선주자들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진 수석대변인은 연석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사드 배치는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당론에는 변함이 없다"며 "계속해서 논의한다는 것이 최종결론"이라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 지도부가 여러 가지 비이성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에 대

한 국민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어서 사드 배치 반대 당론 변경의 요구가 있었던 건 분명하다"며 "그러나 당론을 변경할 만큼 충분히 상황이 무르익었느냐고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 의원들 상당수의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당내 유력 대선주자 3인 간에도 당론 변경과 관련해 확실한 의견 통일이 안됐다"며 "앞으로 의원들 간에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대선주자들이 이 점과 관련해 의견을 모아 가면 앞으로 상황을 지켜보며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론 변경에 대해 찬반의견이 대체로 팽팽했다. 다만, 변경할 만한 상황 요인이 있느냐, 상황이 무르익었느냐, 명분 변화가 있느냐, 이런 점들에 관련해서 그런 상황은 아직 아니란 것이 참석자 대부분이 발언 요지였다"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안희정 '선의 발언' 사과

"국정농단 예시 부적절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안희정 총남지사는 21일 '선의 발언' 논란과 관련, "마음 다치고 아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제가 그 점을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4차 혁명 콘퍼런스에 참석, 축사한 뒤 기자들을 만나 "정치를 대하는 저의 태도는 어떤 분이 말씀하신 대로 받아들이야 대화도 문제 해결도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이었지만, 그것이 최근 국정농단 사건에 이르는 박근혜 대통령의 예까지 간 건 아무래도 많은 국민께 다 이해를 구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런 점에서 제 예가 적절치 못했다"며 이같이 사과했다.

안 지사는 지난 19일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의지를 선한 의지로 받아들이야 한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 분들도 선한 의지로 없는 사람과 국민 위해 좋은 정치 하려고 했는데 뜻대로 안 됐던 것"이라고 언급, 논란을 일으켰다.

당초 '반어법적 표현'이라고 했다가 '계산한 말도, 실수도 아닌 제 마음 속에 있는 제 말'이라고 '진정성'을 강조하며 정면 돌파에 나서는 듯했으나, 야권의 전동적 지지층 내에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자 서둘러 사과한 것으로 보인다.

안 지사는 '우리의 분노는 사람에게 대한 증오가 아니라 불의에 대한 것'이라는 문재인 전 대표 발언에 대해서도 "분노는 정의의 출발이기도 하다"면서도 "그러나 정의의 마지막 마무리는 역시 사랑이다. 그런 점에서 그 말씀도 옳은 말씀"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안철수 "中企 취업 청년 5년간 대기업 임금 80% 보장"

일자리대책 발표...공공부문 직무형 정규직제 추진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21일 "정부의 고용정책 기초를 먼저 일자리의 질적 개선에 둘 것"이라며 "비정규직 양산을 막기 위해 공공부문에 직무형 정규직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같은 당 오세정 의원 주최로 열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일자리정책을 발표했다.

안 전 대표의 이 같은 방안은 업무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직무에 종사하는 비정

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면서 해당 직무에 맞는 보수 체계를 도입하겠다는 뜻이다.

안 전 대표는 특히 "안전·복지·고용 분야 등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추가채용이 필요하다"면서 "국민의 추가 부담은 최대한으로 줄이고 근로자들의 고용은 안정시키면서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안 전 대표는 "공정한 보상시스템을 구축해 격차를 줄이고 차별을 시정할 것"이라며 "국가임금직무혁신위원회를

설치해 국가자격제도를 정비하고 연령과 학력이나 직무와 전문능력으로 평가 받는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안 전 대표는 청년고용절벽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5년 한시적인 고용보장계획을 실시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대기업 임금의 80% 수준을 보장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그는 해당 일자리 숫자를 50만개 정도로 추정하면서 1인당 600만원씩 총 3조원 정도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안 전 대표는 중장년층 고용안정을 위해 서는 고용영향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여

성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성평등 임금공시제도 도입과 유연근로 청구권제 확대를 약속했다.

안 전 대표는 "시장이 살아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정부가 아무리 일자리정책과 복지정책을 펼치더라도 양극화 고공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가 책임지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하지 않겠다. 현금복지로 양극화를 해결하겠다고 하지 않겠다"면서 "일자리위원회 만들거나 일자리 상황실을 둔다고 무엇이 달라지겠느냐"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일자리대책을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제2 우병우 방지법' 법사위 통과

이용주 발의...靑 파견 검사 2년내 검찰 복귀 방지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발의한 검사의 청와대 근무를 제한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소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소위 논의를 거친 만큼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이 법안은 '사법개혁'법안의 하나로 현재 검사가 퇴직 후 1년이 지나야 청와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했으며 청와



대에서 근무한 전직 검사는 파견이 종료되고 나서 2년이 지나야 검찰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검사를 그만두고 청와대 참모가 되거나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후배 검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제2의 우병우·김기춘'을 금지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 공매 컨설팅

경매 추천물건

- ★ [건물] 광주 동구 금동 구시청사거리 남동측 주거용오피스텔(5층) 토지 712.9㎡ 건물 1,545.04㎡ 감평가 2억3천 ▶ 최저가 14억9천
- ★ [공장] 광주 광산구 옥동 평동초등학교 인근 일반공업지역 토지 1,653㎡ 건물 1,384㎡ 감평가 11억9백 ▶ 최저가 7억8천
- ★ [건물] 광주 서구 매월동 동수산물도매시장부근 상가건물(4층) 토지 865㎡ 건물 1,514.31㎡ 감평가 20억7천 ▶ 최저가 14억5천
- ★ [건물] 전남 순천시 낙안면 이곡리 교육시설 현게스트하우스 낙안읍성안근 토지 13,179㎡ 건물 1,302.76㎡ 감평가 16억2천 ▶ 최저가 7억2천8백
- ★ [중고시설] 전남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개인사찰 토지 1,587㎡ 건물 514.19㎡ 감평가 17억1천 ▶ 최저가 7억6천6백
- ★ [공장] 광주 서구 동천동 유촌마을 복서축 인근 토지 1,226㎡ 건물 323㎡ 감평가 12억1천7백만 ▶ 최저가 6억8천2백
- ★ [숙박시설] 전남 화순 도곡면 천암리 도곡온천관광단지내 토지 3,234㎡ 건물 4,281㎡ 감평가 37억8천7백 ▶ 최저가 9억9천2백
- ★ [의료시설] 전남 장성군 삼서면 대곡리 요양병원 NPL가능 토지 11,546㎡ 건물 5,734㎡ 감평가 48억8천6백 ▶ 최저가 21억8천9백

수익형 추천

- ★ [건물] 광주 서구 동천동 동림2지구내 중심상권 아파트 상가 밀집지역 하남대로변 위치좋은 지하1층~지상5층 대지 573㎡ 건물 2,215㎡ 매매 41억 (보3억3천만 월천7백80만 포함)
- ★ [건물] 북구 신용동 첨단2지구 아파트밀집지역 메인상권 4층건물 대지 780㎡ 건물 1,830㎡ 매매 48억 (보5억3천 월2천2백 포함)
- ★ [건물] 서구 금호동 아파트밀집지역 사우나·헬스 6층건물 대지 1,896㎡ 건물 1,320㎡ 1층 점포다수 고수익형 매매 54억
- ★ [건물] 광산구 공황에서 송정역 대로변 지상6층 병원건물 (한방·요양병원적합) 대지 958㎡ 건물 2,570.58㎡ 매매 35억
- ★ [건물] 북구 용두동 양산사거리부근 대로변 메디컬센터 입점중 대지 929㎡ 건물 895㎡ 매매 63억
- ★ [건물] 동구 동명동 사우나상가5층건물 위치좋은 대로변접 현성업종 대지 452㎡ 1,464㎡ 매매 17억 (용5억포함)
- ★ [건물] 광주 서구 동천동 동림2지구내 중심상권 아파트 상가 밀집지역 위치좋은 지상5층건물 대지 476㎡ 건물 1,236㎡ 매매 24억 (보2억7천만 월1천1백5십만 용6억9천만 포함)
- ★ [건물] 광주 광산구 신가동 지하~5층 상가건물 중앙아동병원 인근 대지 277㎡ 건물 604㎡ 한방·요양병원최적지 매매 37억

투자 추천 물건

- ★ [토지] 전남 영암 신북면 신북면사무소인근 일반상업지역 대지 2,535㎡ 무인텔, 대형마트 최적화부지 투자가치높음
- ★ [토지] 광주 북구 삼각동 31사단 정문 인근 전 1,326㎡ 1종일반주거지역 주위 식당성업종 투자적합
- ★ [건물] 광주 서구 동천동 동림2지구내 중심상권 아파트 병원 상가밀집지역 위치좋은 지하1층~지상7층 대지 602㎡ 건물 2,830㎡ 매매 55억 (보5억2천만 월2천4백20만 용25억포함)
- ★ [토지] 광주 북구 화암동 무등산공원내 담 1,700㎡ (도로접) 주말농장 및 농지원부 가능 매매가 상당후 결정
- ★ [건물] 광주 서구 매월동 자동차매매단지 옆 토지 5,359㎡ 건물 595.4㎡ 2층 공장 매매 평당2백5십만
- ★ [건물] 광산구 첨단롯데마트부근 지하~7층 요양병원 대지 1,350㎡ 건물 3,943㎡ 보5억 월3천만 매매 60억 (협의가)
- ★ [토지] 전남 담양 용면 전원주택 조성단지 토지 8,324㎡ 보전관리지역 분할가능 실수요·투자가치 높음
- ★ [토지] 전남 봉산면 기곡리 광주에서 15분거리 1종일반주거지역 토지 2,045㎡ 카페, 커피숍, 전원주택부지 적합

공인중개사 김 재 훈 062-714-2251 배우면서 함께 일하실 공인중개사 구함